

가토 신사

구마모토번의 초대 번주인 가토 기요마사(1562-1611)는 이곳 가토 신사에서 신으로서 모셔져 있습니다. 가토 기요마사의 실제 묘는 구마모토시의 서부에 있는 혼묘지 절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정월이 되면 주민들에게 ‘세이쇼코 상’이라고 불리는 신에게 소원을 빌고자 3 일간 약 40 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옵니다. 기요마사는 1588 년부터 히고국(지금의 구마모토현)의 북쪽 절반, 1600 년부터는 히고국 전역의 영주가 되었습니다. 대규모 치수 사업을 실시하면서 지역에 있는 강을 정비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비옥한 토지를 조성하여 오늘날의 구마모토가 탄생하는 초석을 다졌습니다.

목공과 전사(戰士)를 위한 신

가토 기요마사는 토목 및 건축에 관한 유례 없는 재능의 보유자였다는 점에서 건축가와 목공들의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기요마사는 도쿠가와 막부(1603-1867) 수립의 계기가 된 1600 년의 세키가하라 전투에서도 패배를 모를 만큼 승리를 거머쥐었는데, 일본에서는 검도와 야구 등의 선수들 사이에서 유명한 인물입니다. 또한, 가토라는 이름이 일본어로 ‘가토(‘승리하자’라는 뜻)’와 발음이 같다고 하여, 병을 극복하길 바라거나 수험 합격 등 좋은 기운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가토 신사는 약 150 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이전을 반복해 왔습니다. 창건된 시기는 1871 년으로 무사 계급의 지배가 끝나고 메이지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얼마 지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니시키야마 신사라고 불리며 크고 작은 천수각과 우토 망루 사이의 성 중심에 위치했습니다. 1874 년에는 제국 육군 사단이 성의 부지를 기지로 사용하면서 참배를 하러 찾아오는 민간인들이 기지에 들어갈 필요가 없도록 성곽 북동쪽에 있는 교마치 지역으로 이전했습니다. 1884 년에 발생한 화재로 소실된 후 재건되어 가토 신사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도로가 신설됨에 따라 1962 년에는 부득이하게 재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본래 있던 자리와 가까운 북쪽 성곽 건축군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제카타몬(구마모토성 남서쪽에 있는 문)은 그 공간을 확보하고자 이전되었습니다. 이전된 새 신사는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콘크리트로 조성되었으며, 2016 년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신을 기리다

신사에서 볼 수 있는 크고 작은 2 개의 천수각은 훌륭한 전망을 자랑합니다.

경내에는 가토 기요마사가 심었다고 알려진 오래된 은행나무와 기요마사가 조선에서 들고 왔다고 하는 돌다리가 있습니다. 이 돌다리를 건너면 앞으로의 인생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토 신사에는 1611 년에 주군인 기요마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충성을 맹세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신 중 두 명을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기요마사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들로, 당시 회계를 담당했던 조선인 긴칸(‘긴칸’(金宦)은 회계직의 명칭)과 오키 가네요시입니다.